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 24.(월) 14:00 < 3.25.(화) 조간 > 배포 2025. 3. 24.(월)

산업부 장관, 외투기업·외국상의에 지속적 투자 확대 당부

-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3억불 이상 투자 신고 접수

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(월)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,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.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*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외투기업 오찬간담회('24.2.14, 대한상의), 외국인투자 전략회의(4.3, 진관사), 외국상의 간담회(12.6, 대한상의/경제부총리 공동), 외국인투자 전략회의(12.19, 한국의집)

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,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차·헬스케어·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,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*하였다.

* SJC·ECCK 등 규제개선 사항, 외국인학교 정원확대 관련 애로, 송전망 확충 관련 애로 등

안덕근 장관은 "보호무역주의 심화,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"고 하면서, "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,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,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*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* 글로벌 지역본부 및 R&D센터 유치, 국제투자협력대사 적극적 유치활동, APEC 정상회의 연계 Invest Korea Summit 개최 등

한편,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(Vena Energy), 코닝(Corning)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,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불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. 산업부는 금번 신고식을 포함하여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상희 (044-203-40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현 (044-203-4073)
	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권기만 (044-203-4080)
		담당자	사무관	노형철 (044-203-4089)
			사무관	황인택 (044-203-408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 고 **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개요**

□ **일시 :** ’25.3.24(월) 13:40 ~ 15:00

□ **장소 :**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카네이션룸(5층)

□ **참석자 :** 산업부 장관,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등 20여명

○ **(정부)** 산업부 장관, 무역투자실장, 투자정책국장, 투자정책과장, 투자유치과장 등

○ **(외투업계)** 미국, 유럽(ECCK, 獨, 佛, 英)·일본·중국 상의 대표, 외투기업 대표 등

○ **(유관기관)** KOTRA Invest KOREA, 외투기업 고충처리실

□ **주요 내용**

○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신고

○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논의 및 국내 경영활동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

□ **세부 일정**

* 한-영 동시통역

시 간		세부 내용	비 고	장 소
신고식	13:40~14:00 (20’)	• **신고식**	산업부 참석자	**그랜드 인터컨H** (5층) (신고식) **메이플룸** (간담회) **카네이션룸**
간담회	14:00~14:02 (02’)	• **기념 촬영**	참석자	
	14:02~14:05 (03’)	• **모두 발언**	산업부	
	14:05~14:10 (05’)	• **발표**(’25년 외투 주요 추진시책)	산업부	
	14:10~14:57 (47’)	• **자유토론**(건의사항 등 의견수렴)	참석자	
	14:57~15:00 (05’)	• **마무리 발언**	산업부	

* 간담회 모두발언까지 공개